

May 25, 2020

**Weekly Summary**

<b>Drybulker</b>	중국 양회 2020, 마침내 개막
<b>Tanker</b>	원유 감산 압력 지속
<b>Container</b>	3대 얼라이언스, '공급 회복' 만지작
<b>Sale &amp; Purchase</b>	중고선 거래,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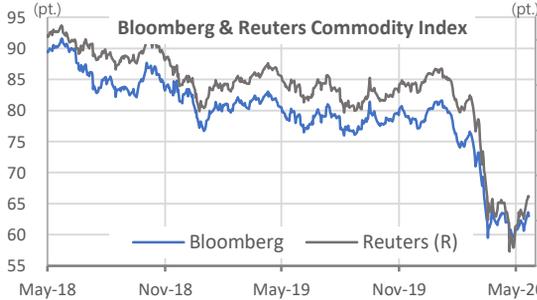
**Foreign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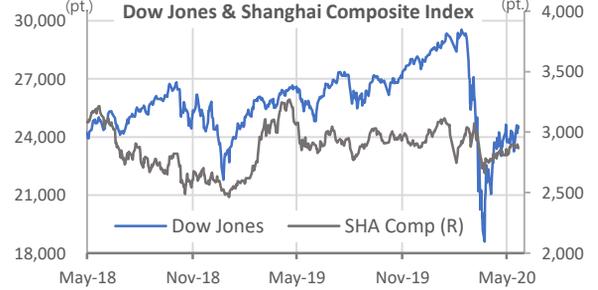
**Interest Rates**



**Commodity Index**



**Stock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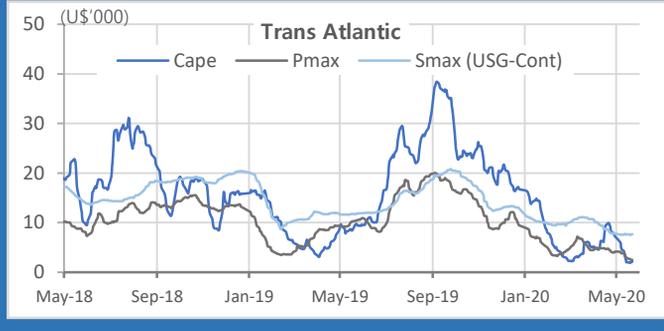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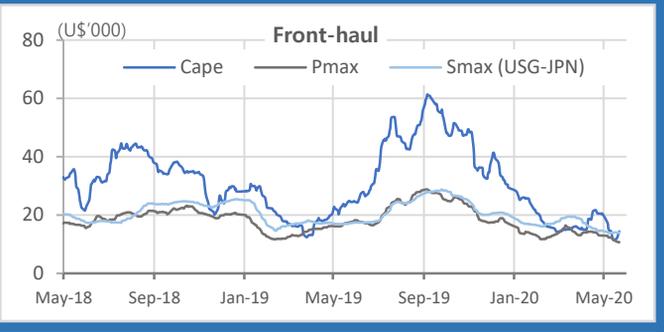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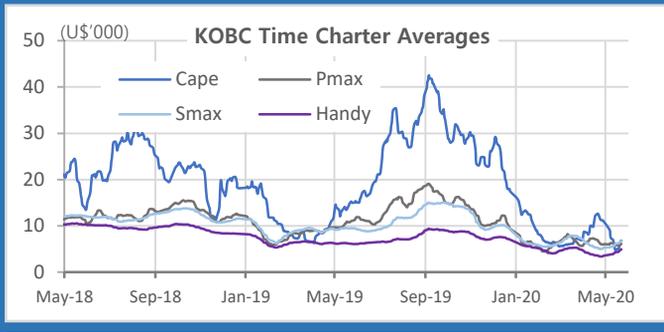
카톡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친구추가 하고, 해운시황 정보와 공사 소식을 받아보세요!

1. 카카오톡에서 검색



2. QR코드로 접속





	Cape				Panamax				Supramax			
	평균	F/H	T/A	Pac RV	평균	F/H	T/A	Pac RV	평균	F/H	T/A	Pac RV
금 주	6,831	14,388	2,100	6,875	6,102	10,700	2,450	5,917	6,734	14,075	7,662	6,714
전 주	4,891	11,550	2,000	3,238	5,827	11,350	2,820	5,400	6,202	14,000	7,625	6,004
증 감	▲ 1,941	▲ 2,838	▲ 100	▲ 3,637	▲ 275	▼ 650	▼ 370	▲ 517	▲ 532	▲ 75	▲ 37	▲ 710

**C A P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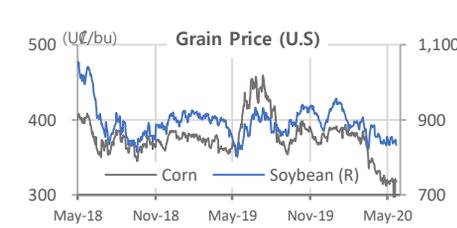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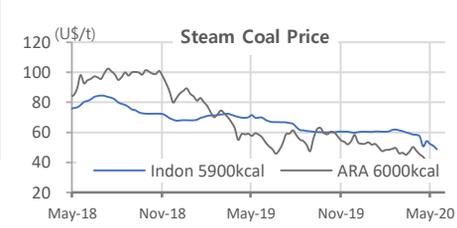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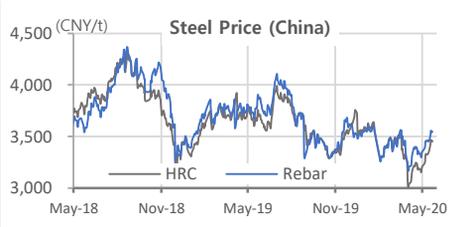
- 호주 철광석 및 호주 석탄의 유입이 동시에 증가하며 태평양 중심 상승세
- 철광석 수요자들의 구매가 코로나19로 철광석 공급에 지장을 받는 브라질 대신 호주산으로 집중되는 한편, 하계 석탄 재고 구축 수요 유입 증가
- 대서양 항로에도 상승세가 나타났으나, 자체 화물 증가보다는 태평양의 회복에 따른 공선 유입 감소효과가 시황을 지지한 것으로 파악됨
- 브라질 내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철광석 공급능력 회복 여부도 불투명
- 5월 21일부터 개최된 중국 양회 기간 중 중국 내 석탄광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된 점도 중국 내 석탄 가격 상승 및 수입 수요 증가로 이어짐
-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발전소들에게 호주산 석탄의 구매 자제를 지시하여, 물동량 지속 여부는 불투명(호주의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조사 요구에 보복 성격)

**P M A X**

- 동남아 및 호주 석탄 물동량 회복 및 NOPAC 곡물 수요 유입에 힘입어 태평양 중심 상승 전환
- 중국 정부가 7월 1일부로 항만 건설세(Port Construction Levy)를 부과하기로 하자 그 이전에 수입을 완료할 수 있는 Spot 석탄 물량에 대한 수요 증가
- 인디아 문순 이전 석탄 재고 구축 수요도 지속됨
- 태평양의 상승세가 남미향 ballaster 유출을 감소시키며 대서양도 추가 하락을 멈추고 지지됨. 그러나 브라질 대두를 제외하고는 시황을 견인할 만한 동력이 부족한 점은 시황 회복에 장애 요인임
- 당분간 태평양 내 석탄 화물이 회복세를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Cape 시황이 다시 악세 전환될 경우 파나마스에도 하락압력이 전달될 것

**S M X · H D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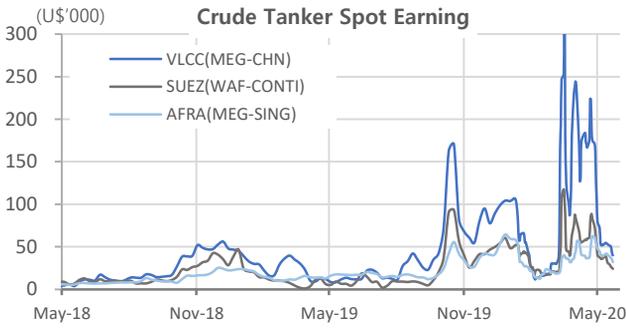
- 태평양 상승 / 대서양 침체의 이중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회복세는 유지됨
- 주 후반 남미를 포함한 대서양 내 일부 항로들의 추가 하락이 저지되는 듯 하였으나, 아직 본격적인 공급 개선의 신호는 감지되지 않음
- 태평양은 거의 모든 항로에서 화물의 유입이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 지속
- 하계 전력 수요 증가 및 인디아 문순 대비 석탄 재고 구축 활동 지속
- 미 서안(NOPAC) 항만을 통한 곡물 화물 지속 유입 등
- 태평양은 동남아 석탄 중심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겠지만, 대서양은 단기 공급 변동에 따른 등락 반복될 것
- 유럽 주요국들의 코로나19 이후 차등적 복귀에 따른 산발적 수요 발생 전망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Global Market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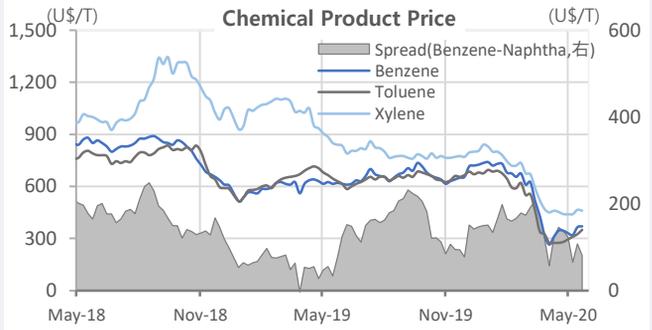
## Crude Tanker



- 원유 감산으로 인한 6월 화물의 제한적인 유입이 전선종에 걸친 하락압력을 가중시킴
- 시황 하락과 동시에 연료유가가 상승하며 일수익력 낙폭 확대 (VLCC 24%, Suez 22%, Afra 21% 하락)
- 정유사 소유 선박의 시장유입 지속도 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
- 제품선 시황은 전주대비 낙폭은 감소하였으나, 신규 화물 유입 부진이 지속되며 하락세 유지
- LR2 44%, MR 31% 하락

Route	VLCC (MEG-China)		Suezmax (WAF-Conti.)		Aframax (MEG-SPORE)	
WS	49.88	▼ 9.04	71.59	▼ 10.23	122.22	▼ 21.11
일수익	40,031	▼ 12,770	24,025	▼ 6,954	31,960	▼ 8,407

## Product Tanker & Chemical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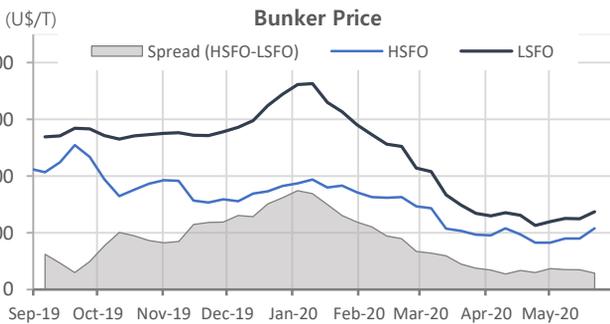


LR2	MEG-CHINA		MR	KOR-SPORE	
WS	120.63	▼ 70.62	\$/Ton	8.73	▼ 1.87
일수익	29,212	▼ 22,701	일수익	8,102	▼ 3,597

Price	Benzene		Toluene		Xylene	
\$/Ton	370	▲ 5	350	▲ 25	460	▲ 5
Spread*	81	▼ 27	61	▼ 7	171	▼ 37

※ Spread : Naphtha 대비 편차

## Bunker Price



- (국제유가) OPEC+의 원활한 감산이행 및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세일오일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상승
- OPEC+의 970만 Bpd 감산에 더해, 사우디 등이 118만 Bpd 규모의 추가 감산 실시
- 저유가에 따른 미국 석유회사들의 자발적 감산 및 석유 시추기 수 감소 지속
- (연료유가) 유가상승 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가 잠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요 부진 지속

구분	WTI (US\$/bbl)	HSFO (US\$/mt)	LSFO (US\$/mt)	Spread (US\$/mt)
Price	33.25	216.00	274.00	58.00
증감	▲ 3.82	▲ 36.00	▲ 24.00	▼ 12.00

※ Singapore 기준, 전 주 대비 증감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KOBC 패널리스트, Global Market Focus



## 운임지수(SCFI) / 용선지수(HRCI)



## 항로별 운임지수

	금주	전주	+/-	'20평균	+/-
美서안	1,678	1,686	▼ 8	1,560	▲ 118
美동안	2,543	2,542	▲ 1	2,747	▼ 204
유럽	827	831	▼ 4	841	▼ 14
지중해	879	875	▲ 4	953	▼ 74
동남아	173	173	-	191	▼ 18
중동	618	656	▼ 38	913	▼ 295
호주	937	935	▲ 2	896	▲ 41
남미	930	998	▼ 68	1,432	▼ 502
日서안	228	228	-	228	-
日동안	244	244	-	241	▲ 3
한국	120	120	-	119	▲ 1
동서Africa	2,817	2,757	▲ 60	2,834	▼ 17
남Africa	733	739	▼ 6	937	▼ 204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 용선 성약

선형	건조*	기간	\$/Day	+/-**	성약 주차
피더 700	C	6개월	4,200	▼ 800	5월2주
피더 1,100	A	1개월	5,500	-	5월3주
피더 1,600	B	3개월	5,700	▼ 1,400	5월3주
피더 2,200	C	3개월	7,000	▼ 3,000	5월3주
피더 2,700	A	5개월	8,100	-	5월3주
내로우빔 5,000	A	8개월	8,700	▼ 600	5월3주
와이드빔 5,500	A	12개월	12,500	-	5월3주
중형 7,000	A	5개월	18,000	▼ 3,500	4월3주
중형 9,000	A	12개월	23,000	▼ 6,000	3월3주

\*A: '04년 이후 / B: '00~'04년 / C: '00년 이전 \*\*직전 성약 대비

## 시장 동향

- (종합) 21주차(5.17~5.23) SCFI 종합지수는 '848p'로 전주 대비 '6p' 하락. 원양구간을 포함한 대부분 항로들의 운임수준이 전주와 유사한 수준 기록하며 보합세. 간헐적으로 화물이 집중 출하되고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가용 선복량 증가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물량 약세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당분간 예년 수준의 선복량을 투입하긴 힘들 전망
- (미주항로) 북미항 스팟화물이 2주 전부터 연이어 출하된 가운데 선복 감축 유지되며 운임 보합. 22주차는 전년 동기대비 투입 선복량 감소(동안 ▼5.3%, 서안 ▼11.0%), GRI(6.1일 부) 전 밀어내기 수요 등의 영향으로 21주 대비 운임 소폭 상승 예상
- (유럽항로) 물동량 약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임시결항의 영향으로 선복이 부족한 선사들이 운임 경쟁을 지양하며 운임은 전주 수준 지속. 22주차 가용 선복량 제한(전년 동기 대비 북유럽 ▼10%, 지중해 ▼24%) 움직임 여전
- (연근해/기타) 중국, 일본 항로 특별한 동향 없음. 동남아 지역은 라마단 종료 후 이드알피트르 명절(Eid al-Fitr, 5.24~5.27) 기간 중 집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증가하였으나, 긴 휴무 이후의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한 확대됨

## 주요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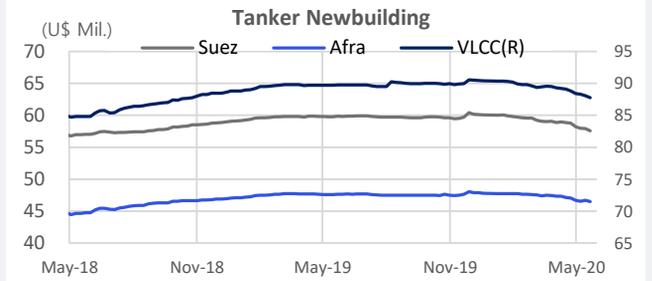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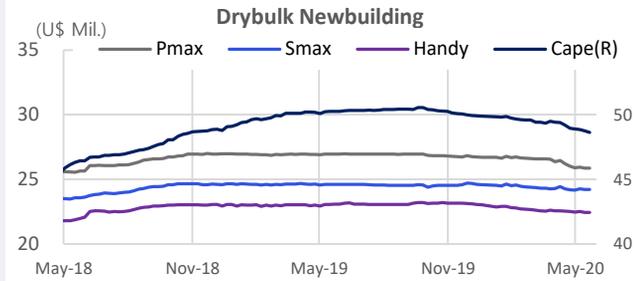
- 『컨테이너선 유휴 선복량(Inactive fleet) 신기록 또 다시 경신, 더욱 늘어날 전망』 (알파라이너 - 2020.5.20)
  - '20.5.11 기준 글로벌 컨선 유휴 선복량이 265만 TEU를 기록하며 종전 최고치였던 246만 TEU('20.3.1 기준) 갱신. 이는 총 선복량(약 2,345만 TEU)의 11.3% 수준이며 총 5,764척 중 524척(이 중 71척은 스크러버 설치 목적 입거)이 운항을 멈춘 상태. 대부분 권역의 컨화물 부족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총 유휴 선복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
- 『중국발 북미항 서비스, 타이트한 선복 운영 영향으로 다음 항차로 이월(Rolling Over)되는 화물 증가』 (IOC - 2020.5.19)
  - 북미항로 헤드홀 주간 가용 선복량은 여전히 타이트한 가운데 지난 2주 간 북미 수입수요가 반짝 회복되며 일부 항차의 소석률이 100%를 상회하는 현상 발생. 이에 중국 주요 항만들에서 다음 항차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화물들이 급격히 증가함. 다만 이를 수요 회복의 본격 시그널로 보기엔 어려워 공급 회복 시점에 대한 얼라이언스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
- 『북유럽 항로, '20.5월 임시결항 규모 최대치 기록 예상』 (헬레닉쉬핑뉴스 - 2020.5.21)
  - 선복 급감 영향으로 '20.4월 헤드홀과 백홀 간 스팟운임 수준이 몇 주 동안 역전되기도 했던 중국-북유럽 항로는 '20.5월 임시결항이 연간 최고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할 전망(주요 선사들에 따르면 유의미한 물량 개선은 '20.7월경 나타날 것으로 기대)

※ 자료: 상해항운교역소, Howe Robinson, 주요 전문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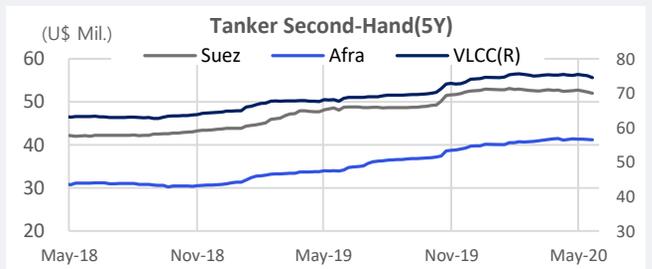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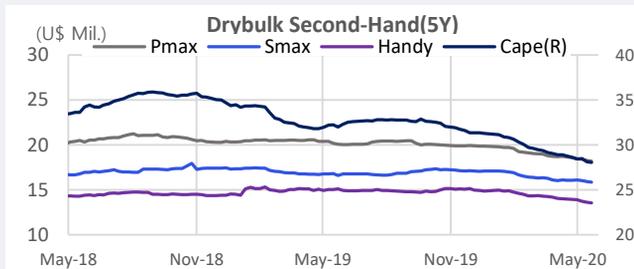
## Newbuilding & Resale Price

Type	DWT	Newbuilding				Resale				
		금주	+/-	'20평균	'19평균	금주	+/-	'20평균	'19평균	
Drybulk	Cape	180K	48.62	▼ 0.12	49.37	50.13	48.38	▼ 0.15	49.30	50.61
	P'max	76-82K	25.86	▼ 0.01	26.42	26.90	26.04	-	26.35	26.92
	S'max	56-61K	24.21	▲ 0.01	24.36	24.58	24.99	▼ 0.03	25.31	25.57
	Handy	32-37K	22.43	-	22.63	23.06	21.61	▼ 0.08	22.06	22.69
Tanker	VLCC	310K	87.79	▼ 0.28	89.36	89.79	97.07	▼ 0.74	99.61	94.60
	Suezmax	160K	57.57	▼ 0.35	59.10	59.75	66.98	▼ 0.50	68.54	64.82
	Aframax	105K	46.52	▼ 0.21	47.35	47.59	53.00	▼ 0.15	53.59	4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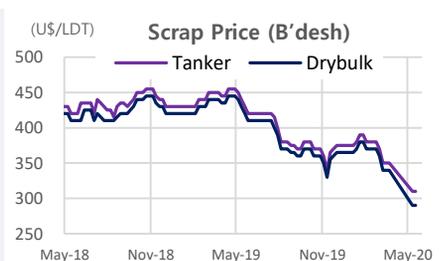
## Secondhand Price

Type	DWT	5 Years Old				10 Years Old				
		금주	+/-	'20평균	'19평균	금주	+/-	'20평균	'19평균	
Drybulk	Cape	180K	28.04	▼ 0.07	29.42	32.56	18.56	▼ 0.18	19.86	22.77
	P'max	76-82K	18.21	▼ 0.05	18.95	20.26	11.27	▼ 0.08	12.11	12.96
	S'max	56-61K	15.86	▼ 0.08	16.37	16.99	9.96	▼ 0.29	11.22	12.33
	Handy	32-37K	13.57	▼ 0.06	14.26	14.97	7.33	▼ 0.18	8.03	9.88
Tanker	VLCC	310K	74.49	▼ 0.61	75.18	69.28	50.46	▼ 0.15	50.66	45.69
	Suezmax	160K	51.97	▼ 0.31	52.65	48.51	35.47	▼ 0.11	35.63	31.79
	Aframax	105K	41.20	▼ 0.06	40.97	35.55	28.59	▼ 0.43	29.06	23.52



## Scrap Price

	India				Bangladesh			
	금주	+/-	'20평균	'19평균	금주	+/-	'20평균	'19평균
Bulker	300	-	364	387	290	-	353	398
Tanker	320	-	375	397	310	-	364	408



※ 증감수치: 2020.03.23.일 대비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로 폐선가 발표 중단)

※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GMS



## KOBC Drybulk Panelists

	Ildo Chartering Corp.		Jangsoo Shipping Co., LTD.		Flaship PTE. LTD.		Maritime Shipbrokers Co., LTD.
	Daesang Shipping Co., LTD.		Basim Chartering Corp.		Max-Bridge Co., LTD.		Greatwall International Marine LTD.
	Ace Chartering Corp.		Kaya Shipping Co., LTD.		Interlink		Optima International Shipbroking Services Shanghai
	M.I.T Chartering & Agency Co., LTD.		MARS CO., LTD.		Evershine Consulting CO., LTD.		
	Ocean Robin Shipping Holding Corp.		Good Turn Transportation LTD.				

## KOBC S&P Panelists

	Gyro Maritime Co., LTD.		Forcean Shipbroking		Hanwon Maritime Co., LTD.		Pioneer Shipbrokers (Vietnam)
	Hanbada Corporation		Wirana Shipping Corporation		Fides Corp.		Harvest Shipbrokers PTE. LTD.
	Kims Maritime Co., LTD.		GMS Korea		Maxmart Shipping & Trading Co., LTD.		SSY London
	Haidely Shipping		STL Global		HIT Marine Company LTD.		Reshamwala Shipbrokers
	Seasure Shipbroking		Mcquilling				

## KOBC Tanker Panelists

	Presco International		Reshamwala Shipbrokers		Neostar Maritime		Tienfung Shipping
	KOEL International		Hans Shipping		Nav Maritime		Alliance Tanker Chartering

## KOBC Container Panelists

	Unico Logistics		Pactra International		Eunsan Shipping & Aircargo CO LTD.		Euroline Global
	Tradlinx						